

국힘 “사고수습 집중할 때”...책임론 공세에 선 곳기

야당에 정쟁 중단 초당 협력 당부
이상민 장관 발언 당내 불만 기류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책에 집중하면서 야당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고, 주호영 원내 대표·성일중 정책위의장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참석자들은 20여 분의 짧은 회의를 마친 후 곧장 당 버스를 타고 조문예 나서는 등 추모 기조를 유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무책임한 가짜뉴스들이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지금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고수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형 사고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민주당 일각의 남 탓이 아니라 말고 식 가짜뉴스를 내지르고 보는 무책임함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인 만큼 지금은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안전 불감증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다만 구설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장기적으로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도부는 물론 이 장관을 겨냥한 당장의 ‘책임론’ 공세에는 선을 그어 있다. 지금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지금은 모든 당력과 국력을 집중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먼저”라며 유승민 전 의원의 파면 요구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수습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한층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해 “적절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언제든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걱정이 크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각 때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중진은 통화에서 “어제 사과문을 낸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화한 뒤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한총리 외신 질문 공세에 140분간 해명

외신 기자들 불러 긴급 기자회견
“제도적 뒷받침-체계적 노력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조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를 대표해 해명에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2시간 20분 가량 질문에 답변했다.

한 총리는 사고원인을 묻는 말에 “중요한 요인은 결국 ‘군중 관리’라며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외신 기자들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해서 과연 방지할 수 없는 참극이었는가’, ‘경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가자, 한 총리는 “경찰 조사가 완결되면 투명하고 분명하게 내외신에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질문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이상민 장관이 말한 내용이 “경찰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 정부다. 하나의 이유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중 관리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며 “주체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NBC 기자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다시 이런 시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젊은이가 아직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대응을 잘하는 면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고 사흘만에...행안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일제히 사과

“국가는 국민안전에 무한책임”
‘구설’ 용산구청장도 머리 숙여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원인 관련,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선부터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함께 국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역시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 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윤 청장은 특히 이번 참사 직전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부실한 대응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소상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실한 대응을 시인한 윤 청장은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도 항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항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행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